

특별기고



장영재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어느덧 아침 최저기온이 0℃ 이하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초겨울 날씨가 되었다. 예부터 겨울의 시작인 입동(立冬) 시기가 11월 7~8일부터였음을 고려해보면 겨울 동안 먹을 다량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김장은 보통 일 평균기온이 4℃ 이하로 유지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소설(小雪)인 11월 22~23일 전후를 적기로 본다. 김장은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의 주요한 비타민 공급원이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의 일을 도왔던 마을의 연중행사였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김장 시기는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또한 식단의 다양화, 외식의 보편화로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도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인구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가 사라져 가고 전과 달리 사시사철 김치를 담글 수 있으며 시중에는 제품화된 김치도 많이 나와 김장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2021 김치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김치의 1인 1일 섭취량은 2010년 109.9g에서 2020년 88.3g으로 감소하였고 소비자 가구의 상품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31.3%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가구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직접 조리하기보다 외부에서 사서 먹거나 배달 등으로 음식을 조달하고 있어 부식인 김치 소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로서 김치를 담그는 것은 가족 협력 및 결속을 강화하는 공동작업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행위를 넘어서 김장의 지식과 기술은 세대를 통해 전승되어 온 가족의 유산이었

고 지리 조건과 기후는 다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인의 특성상 가장 적합한 재료와 방법으로 창조성과 독창성을 지켜온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김치의 날 기념일이다.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11월 22일을 미연방 김치의 날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도록 결의한다고 한다.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맛을 강조하며 채식주의자, 비건식 등 다양

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K-FOOD의 중심인 김치의 속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이웃과의 정을 나누며 유대감을 끈끈히 해왔던 한국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근의 김장 문화가 절임 배추를 구매하여 가정에서 간단하게 양념을 버무리는 형태와 상품 김치의 구입 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K-culture의 진화와 더불어 확산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의 우수성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장 문화'가 가장 한국인다움을 지켜온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 예방 의미 한번더 생각하자



김재성 /영암소방서장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중 하나다. 전기 소켓과 가전제품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고, 불을 끄기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화재가 발생할 때 대비하는 계획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비상 대피 경로와 모임 장소를 정하고, 화재 비상용품들을 구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화재 예방 교육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중요하다. 어린이에게 화재 위험과 화재 예방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화재 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심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불을 끄는 습관을 들이고, 담배꽂이를 주의해서 처분하는 등 일상적인 작은 조치가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예방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재차 독려하는 시기이다.

매년 다양한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재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재난 중 하나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따라서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에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우리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재차 독려하는 기간이다. 이 달을 통해 우리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화재 예방의 주체가 되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에 옮겨 보자.

'산불은 재난' 산불예방 실천을



정태안 /장흥소방서 정남진119안전센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하기 전에 성냥,ライター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고,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 실시해야 하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했다면 즉시 소방서나 경찰서, 산림 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초기의 작은 불일 경우에는 소화기나 외부 수전·천·흙 등으로 덮어 직접 진화를 시도해 화재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등산 중 대형산불 발견 시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는 피하면서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습도가 낮아 대기 환경이 건조해 다른 계절보다 불이 나기 쉬워 산불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산불의 원인으로는 등산중 입산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약 37%로 자연적인 요인보다 인위적인 요인의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낮은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주변에서 긁어낸 후 얼굴 등을 외투나 쥔 천으로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때까지 엎드려있어야 한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

물질 등은 제거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에 위험상황을 알리며 대피 방송 등에 예의주시하여 산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나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재난이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실천은 산불예방이다.

알아봅시다

병원응급실

▲ 전대병원 220-5114
▲ 조대병원 220-3114
▲ 기독교병원 650-5000
▲ 보훈병원 602-6114
▲ 광주한국병원 380-3000

교통안내

▲ 버스터미널 360-8114
▲ 광주공항 940-0214
▲ 대한항공 384-9660
▲ 아시아나항공 607-6310
▲ 철도안내 1544-7788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amaeil.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광고국 (062) 363-0005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재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편집국장 (062) 363-8800
정경부 (062) 362-6116
사회부 (062) 362-6226
문체부 (062) 362-6116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희망 새언론 새천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장.....223-4123
무등.....224-4188
동부.....234-4235
학동.....225-0651
광천.....374-2120
화정.....374-3713
금호.....376-7153
생촌.....371-9584

상무.....381-5310
서부.....651-0004
송암.....362-4102
농성.....362-4102
진월.....671-7276
봉선.....675-5530
중앙.....521-5640
중흥.....433-1503
양산.....574-3745
운암.....521-4270

오치.....261-9461
문흥.....261-9462
일곡.....573-3200
동운.....525-8994
두암.....266-1920
침단.....971-1920
신창.....955-0451
월곡.....941-9174
송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포...010-8718-1234
순천...010-9656-1383
광양...010-9656-1383
담양...010-3602-3550
곡성...010-2632-4504
구례...010-8597-0053
보성...010-3626-4776
화순...010-2430-5055

영광...010-9860-5489
완도...010-5066-4708
장흥...010-5665-8354
신안...010-3610-9153
강진...010-3775-2369
장성...010-3610-7824
무안...010-9271-8517
여수...010-8587-2288

함평...010-3095-5842
영암...010-4604-3742
진도...010-8525-4567
해남...010-3471-6542
광산...010-7613-4320
고흥...010-4644-8383